

맛따라 맛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15 광주시·전남도 '남도 좋은 식단' 캠페인

식단 선진화로 외국인 입맛 잡는다

음식 맛이 뛰어난 광주와 전남에는 식도락(食道樂) 관광객들이 적지 않게 찾아온다. 녹색의 땅, 청정해역에서 자란 식재료로 만든 넉넉하고 푸짐한 산해진미(山海珍味)에 후덕한 인심까지 곁들여져 최고의 맛기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남도 한정식은 맛깔스런 남도 음식의 결정체로 손꼽힌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해마다 '광주 1등 맛집'과 '남도 음식 명가'를 각각 선정해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남도음식은 대부분의 요리가 양이 많은 뿐만 아니라 개인 배식이 아닌 접시나 대접에 한꺼번에 모든 음식이 올라오는 게 특징이다. 특히 탕이나 찌개는 물론 모든 반찬이 공동 그릇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낯설기만 하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남도 음식을 한층 위생적이고 먹기 좋게 개선하는 '남도 좋은 식단 만들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의 방문이 늘어날 것에 대비, 남도의 표준식단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찌개·탕류 개인별 국자·그릇 지원

'남도 좋은 식단'은 요리 가지 수는 물론 양이 너무 풍부해 남기는 경우 많은데다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공동으로 먹는 비위생적인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음식물은 소형 개인별 찬기를 통해 제공하고, 한번 제공한 음식물(된장, 젓갈류, 밀반찬 등)은 재사용을 금지토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한 그릇에 놓고 여러 사람이 떠먹는 찌개·전골류는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개인별 국자와 빈 그릇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말부터 모범음식점 1천100개를 대상으로 남도 좋은식단 운동을 펼쳐 현재 76개 업소가 이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남도 좋은식단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 실천 업소에 대해서는 개인별 복합찬기와 숟가락 받침대, 위생용품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남도 좋은식단 실천을 희망하는 300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도 해준다. 오는 6월까지 남도 좋은식단 실천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남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함께 ▲음식점 경영합리화를 위한 판매 전략 및 고객관리 방법 ▲음식문화 개선 이행방법 및 추진방향, 사업필요성 ▲종업원 손님대응 요령 등 친절교육 및 현장실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도내 모범음식점 중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과 음식



광주시와 전남도가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의 방문이 늘어날 것에 대비, '남도 좋은 식단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관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남도음식문화 콘서트 행사장. <광주일보 자료사진>

문화 개선실현 희망업소를 중심으로 시·군별로 10여 곳씩 선정해 해당 음식점의 경영진단, 좋은 식단 상차림, 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들어 음식문화개선 맞춤형 컨설팅을 요구하는 음식점이 점차 증가하는 등 동참 업소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남도 좋은식단을 실천하고 있는 목포 독천식단 주인 최순희씨는 "3월 초에 음식문화개선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받은 뒤, 개인별 소형찬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음식을 개인 별로 제공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감소하고 위생적이어서 손님들의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맞춤형 경영컨설팅 인센티브 제공도

광주시도 지난해부터 지역 음식점의 식생활문화개선을 위해 적정량의 음식 제공, 남도 음식 재사용 금지 등의 캠페인을 벌여왔다. 식단 주인과 종업원 등 연인원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좋은 식단 자율실천 결의대회와 친절·위생교육을 병행, 자율 개선을 유도했다.

모범 음식점과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쓰레기봉투·앞치마·위생물수건 등을 보급해 전국체전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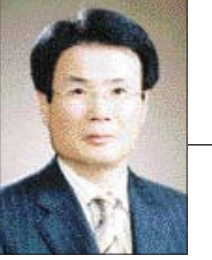
식당 주인·종업원 꾸준한 재교육

올해는 특히 제37회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식품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은 물론 소규모 음식점 위생수준향상 도우미사업을 식품관련 단체와 함께 추진한다. 이번 달에는 음식점주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업무연찬회'를 개최해 음식문화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전남도 이승욱 사회복지과장은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조기정착되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동참이 우선돼야 하지만 소비자들의 음식에 대한 의식변화가 중요하다"면서 "남도 음식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특별기고



이승욱

2008년은 광주·전남 방문의 해이면서 제89회 전국체육대회를 10월중 전남도내 일원에서 개최함에 따라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의 성공여부는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되지만, 음식과 숙박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에 평소 관심을 갖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음식은 어떠한가? 남도음식이라면 누구나 먹어보고 싶어하는 대표 메뉴인데 큰 접시에 가득 담아 공동으로 먹게하고 있다. 이처럼 음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염성 질병도 옮길 수 있는 등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푸짐한 음식을 제공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재사용하는 문제가 있어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음식문화는 가정에서부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심각성을 모르고 습관적으로 먹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웰빙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음식문화화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변해야 한다. 따라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최소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만은 지양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별로 먹을 만큼 소량을 제공하고, 어쩔 수 없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찌개나 전골류 등은 떠먹을 수 있도록 앞치마와 국자, 집게를 제공하면서 한번 사용한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남도음식 맛 최고라지만 상차림·위생 국제화 필요

이러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음식업소의 변화가 중요해 모든 음식점이 동시에 다 변할 수가 없어서, 우선 도내 모범음식점 1천2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권역별 교육에 이어 금년에는 시군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중 음식문화 개선을 희망하는 업소 200개소(시군당 10개 내외)를 선정하여 경영컨설팅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여 상차림분야와 친절서비스 분야를 컨설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들 업소만이라도 음식문화 개선 시범업소로 지정하여 시군을 대표하는 음식명소가 되도록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형찬기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실천업소 명단을 리플렛으로 제작 배부하여 도 산하 공직자부터 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도에서 남도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는 낙후되어 있지만 많은 문화유적지와 천혜의 자연경관 등을 보유하고 있어 체험관광지로 부상함에 따라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남도음식이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게 변해야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문화 개선 운동은 업소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고객인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 조상들이 가꾸어 온 남도음식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애정을 갖고 애용하면서 키워나갈 시기이다.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

언론인 캠퍼

광주시 中·日 14명 초청
광주지역 관광자원 소개

광주시가 일본과 중국 언론·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캠퍼를 실시하는 등 해외 관광객을 발굴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광주시는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7~13일까지 일본과 중국 언론사 관계자 14명을 초청, 광주권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집중 소개했다.

시는 이번 캠퍼에서 일본 후쿠시마 지역 최대 방송매체인 후쿠시마 TV 제작진에게 DJ센터, 국립 5·18민주묘지, 시립민속박물관, 비엔날레 상설홍보관, 중앙도 등을 사전견학로 순례하는 상품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후쿠시마 TV취재팀은 사전견학상품과 향토음식박물관, 예술의 거리 등 광주의 관광자원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특집으로 방영할 계획이다.

또 중국 상해지역 광주 관광상품 판매여행사인 상해양자국제, 상해 중국국제 등 여행사 관계자들과 여행전문 언론사인 신강북도도보, 상해신문도보 취재진은 정율성 생가, 충장로, 운주사, 낙안 응성, 보성 다원을 답사했다.

시는 이번 캠퍼를 계기로 중국 상해지역에서 판매되는 광주공화 이용 관광상품과 제주지역 상품을 연계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해구 광주시 관광과장은 "올해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아시아 관광시장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승공인중개사 (062) 954-7700, 010-9468-7959. 수완지구 전문부동산. 토지매매: 광산구 수완동 35m 대로변 자연녹지 담 1,762㎡, 4,231㎡ m²당 70만(분할가), 수완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정문 입구 상업용지 500㎡ m²당 190만, 수완지구 35m 대로변 버스정류장 앞 상업용지 820㎡ m²당 300만, 광산구 유계동 담 4,300㎡ m²당 41,000원. 상가건물매매: 서구 유촌동 버들마을 5층 상가건물 (점포13칸, 지하주차장) 보증금 4억 9,000만 원세 764만 매가 18억.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수완지구 중심상권,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1층: 약국, 전시장, 안경점, 부동산, 이동통신업, 2~5층: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임대중(평수 다양),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riba제프 입점확정, 2층 파파존스 피자 입점확정, 6~8층: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남·여직원 모집.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충전소 거래 전문.

50% SALE 4월30일 까지. 홍 스페이스 이태리가구전문점. HOME PAGE: www.홍스페이스.kr 또는 www.hongspace.kr. ADDRESS: 동구 장동 58-15 홍스페이스 빌딩. 062)226-7565~7. *홍스페이스는 OEM이 아닌 100% 이태리 원제품을 수입판매 하고 있습니다. 정동로터리, 영영학원, 동구청, 조대, (구)도청.